

중국, 유럽산 화학제품 반덤핑조사

염소계 화학제품 대상으로 ...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치 보복인 듯

중국이 유럽 화학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조사 계획을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비즈니스는 프랑스 경제지를 인용해 중국은 벨기에 Solvay 등의 염소계 화학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생산 원가 이하로 판매돼 경쟁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덤핑행위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27일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중국이 일부 유럽 화학기업의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미국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평균 4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2주 만에 반덤핑 조사를 2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온 후 EU와 일본, 미국의 무계목(Seamless) 합금관과 합금튜브에 대해 앞으로 1년 동안 덤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EU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28>